

與 세종시 충청권 설득 '올인'

“세종시 수정에 대한 국민 여론의 향배는 충청권 설득에 달렸다.”

여권이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당·정·청이 약속이나 한 듯 하나같이 충청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직접 충청지역을 방문, 세종시 수정 방침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지역 여론 설득에 나설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방문 계획은 비록 정부 부처의 내년도 중소기업 분야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자리이지만 충청 지역 여론주도층과 간담회를 준비하는 등 충청 여론을 잡기 위한 행보로 변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 달 초순으로 예상되는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의 대안 발표 이후 세종시를 직접 찾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이달말 직접 방문 수정 불가피성 설명

鄭총리 등 당정청 총출동 우호적 여론조성 나서

세종시 수정의 총대를 멘 정운찬 국무총리는 충청 방문의 횡수를 늘리고 있다. 지난 10월30일과 지난달 28일 두 차례 세종시를 방문한 데 이어 12~13일에는 1박2일 일정으로 대전과 충남지역을 찾았다.

정 총리는 12일 대전KBS 주최 ‘세종시 토론회’에 참석,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세종시의 모든 입주기관 건설 공사에 착수하고, 세종시 완성 시점도 오는 2020년으로 현행보다 10년 앞당기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토론회에 이어 연기군 행복도시 첫마을 아파트 사업현장을 방문, 연기군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내년 1월 10일이면 발전방안(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가 열린 대전 KBS 앞에는 자유선진당 당원 60여명이 나와 정 총리가 탄 버스를 향해 계란을 투척했으며, 이재선 권선택 김창수 임영호 등 자유선진당 의원 4명은 정 총리와 직접 만나 “대안 없이 토론회에 왜 오느냐”, “지방언론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정 총리는 12일엔 대전에서 숙박하고 13일에는 고항인 충남 공주로 이동, 당암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 대한 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를 방문해 신도들과 오찬 공양을 함

게했다.

정 총리는 또 14일 자유선진당 의원 및 충남지역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는데 이어 주말에도 충청지역을 방문하는 등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세종시와 충청권을 찾아 우호적 여론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달 세종시 대안이 공식 발표되면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주민설명회를 갖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세종시특위(위원장 정의화)도 충청권 여론수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달 24일 충남도청, 30일 충북도청을 각각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일 이완구 전 충남지사, 11일 정우택 충북지사 초청 간담회를 갖고 지역 여론을 청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판다로 분장한 기후회의 시위대

1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의회 앞에서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의 ‘불을 끄시오(shut-the-lights)’ 캠페인의 일환으로 거리에 불꽃이 있는 판다로 분장한 시위대의 모습. 이날 코펜하겐 도심부에서부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 회의장까지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1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의회 앞에서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의 ‘불을 끄시오(shut-the-lights)’ 캠페인의 일환으로 거리에 불꽃이 있는 판다로 분장한 시위대의 모습. 이날 코펜하겐 도심부에서부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 회의장까지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연합뉴스

정부 2012년 유엔기후변화회의의 유치 추진

李대통령, 정상회의의 기조연설서 의사 표명

정부가 2012년 열리는 제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 유치를 추진한다.

13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15) 정부 대표단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기후변화정상회의의 기조연설을 통해 2012년 당사국 총회 유치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유엔기후 변화회의의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 설립 이후 처음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달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로는 처음으로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선진국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유치 결과가 주목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매년 연말에 대륙별로 돌아가며 열리는 기후변화 관련 최대 국제회의로 내년 제16차 총회는 멕시코, 2011년 제17차 총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이용섭 “개혁후보 단일화로 낡은 세력 교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후보로 거론되는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은 13일 “내년 광주시장 선거는 낡은 세력과 새로운 세력간 경쟁구도가 될 것”이라며 “변화와 혁신을 이끌 민주개혁세력이 새롭게 등장해 세력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낡은 세력이란 지난 10여년간 광주에서 일정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이들에게 또다시 광주를 맡긴다면 ‘고인물’이 돼 광주발전을 저해할 것이다”며 “이들을 대신할 새로운 세력이 당선될 수 있도록 민주개혁세력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2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서 ‘장바구니 민생투어’를 갖고 대형마트와 SSM 확산에 따른 재래시장의 위기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당초 내년 2월까지 갖기로 한 ‘릴레이 장바구니 투어’는 선관위가 선거법 저촉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중단기로 했다.

양형일 “17일 광주시장 후보 경선 출마”

○--양형일 전 국회의원이 오는 17일 오전 11시 민주당 광주시장에서 내년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시민포럼 새물결 이사장인 양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각오와 심경을 밝힐 예정이다.

또 광주발전 핵심 정책인 ‘휴먼네트워크를 통한 선진 복지공동체 광주 만들기’ 청사진도 제시할 방침이다.

양 의원은 출마 선언 기자회견 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헌화하고 본격적인 민심잡기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전갑길 21일 ‘자서전’ 출판기념회

○--내년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이 오는 21일 오후 5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서전 ‘함께 여는 힘찬 세상’ 출판기념회를 연다.



‘전갑길이 걸어온 길, 가야할 길’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 전 청장은 자신의 성장 과정과 인생 행로를 솔직 담백하게 풀어냈다.

또 정치 스승으로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을 회상하고, 대학을 세 군데나 다닌 사연, 정치 입문 후 처음으로 패배를 맞본 17대 총선에서 받은 충격과 극복과정 등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전 청장은 이 책에서 광주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이라는 자신의 특이한 정치 이력과 정치 철학,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재난관리 대비 평가

광주시 ‘최우수’

광주시가 소방방재청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여름철 재난관리 대비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피해 복구 위주의 재난관리 체계에서 예방중심의 체계적인 재난 관리로 전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높게 평가돼 이 상을 받게 됐다.

시는 재난 예방을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한 데 이어 인명피해 ‘Zero화’ 대책 추진, 영산강·황룡강유역 홍수비상기획단 구성, 민간 자율방재단원 1천550명을 위촉해 예방 활동을 펼쳤다.

시상식은 내년 5월25일 방재의 날에 열린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일 소방방재청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추진실태 중앙합동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생물자원 활용 ‘기능성 식품’ 호남권 공동개발

공동 기획위 운영...2013년까지 490억 투입

호남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물 자원의 특성을 활용해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호남권 헬스케어 광역적 육성사업’이 추진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북도와 공동으로 호남권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기획위원회는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 전주진 전남대 교수, 부위원장에 장해춘 조선대·신정구 전주대 교수, 간사장에 김선오 전남 생물재단 박사 등이 선임됐다.

사업은 지난 9월 신규 광역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지역발전 5개년 발전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내년 신규사업비로 국비 72억원 등 175억원이 확보됐다.

또 2013년까지 490억원 규모로 생물자원 DB 구축, 식·의약품 소재 개발, 기업 지원, 시제품·디자인 개발, 관련 분야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광주와 전남·북도는 자원조사에 서부터 효능 및 시험인증, 제품화, 생물자원정보 DB 구축 등의 역할을 분담해 호남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도내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의 안전성평가분부가 이전해 오면 도내 약 3천여개 기업의 시험평가와 해외 수출

을 위한 해외 인증 등 기업지원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市교육위원 주영길씨 승계

광주교육위원회는 최근 윤봉근 교육위원의 사퇴에 따라 주영길(65·사진) 전 금당중 교장이 교육위원직을 승계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임 주 교육위원 임기는 윤 전위원의 잔여임기인 내년 8월 31일까지다. 윤 전 위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 광산구청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



퍼시스·소름이 광주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가격, 최고의 품질을 약속합니다

최치

FURSIS TEEMS Room